

차별없이 품어주는 만물의 어머니



◇ 모든 중생을 제도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땅에 머무르고 계신 지장보살. 지장(地藏)이란 이름은 땅을 주저로 하여 항상 머물고 있다는 의미이다. 통도사 명부전.

월 2회 연재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땅

“땅은 깨끗한 것도 받아들이고 더러운 것과 오줌도 받아들인다. 그러나 땅은 ‘이것은 깨끗하다. 이것은 더럽다’고 분별하여 좋아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이처럼 수행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땅과 같이 해야 하리라. 나쁜 것을 받거나 좋은 것을 받더라도 조금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 말고 오직 사랑하고 기쁨이 여기는 마음으로 중생을 대해야 한다.” (증일아함경)

“중생들의 세계”인 땅은 하늘과는 또 다른 정기를 간직한 공간으로, 만물의 존재양상을 다스리는 힘이 존재하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다. 동·서양 가릴 것 없이 땅은 ‘어머니’ ‘고향’ 등을 상징하며 온갖 생물·무생물을 품어주고 키워내는 곳이다. 모든 것을 분별없이 품어 안을 수 있는 ‘어머니’에 견주어지기에 ‘종교’를 상징하며 만물을 생산해 내기에 근원으로 여겨진다. 만물을 이루고 있는 4대 요소로 지(地)·수(水)·화(火)·풍(風) 가운데 땅(地)은 ‘인체의 골격과 같이 물체가 오래 지속하게 하는 작용을 하도록 기본을 이루는 것’이라 여겨지고 있다.

원효스님은 《무량수경요(無量壽經要)》에서 ‘중생심(衆生心)의 상공은 허공과 같이 걸림없이 자유로운 것이니 어머니를 모함으로 규정할 수 없는 것이다. 하물며 불국토니 예토니 하는 구분이 있을 수 있겠는가. 다만 중생 스승(스승)이 미혹하여 갖가지 혼탁한 흐름에 빠지는 것일 뿐이며 이러한 일들은 모두 거대한 공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공을 깨고 보면 이 곳과 저 곳의 구별이 없어지고, 예토니 불국토니 하는 것도 본래 일심(一心)으로 나뉠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우리들의 현실세계인 예토도 마음먹기에 따라 불국토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불

교에서의 땅은 중생들이 사는 현실세계 이면서 부처님이 화현하는 ‘도량(道場)’을 총체적으로 상징하고 있다. “사복이 말을 마치고 풀뿌리를 뽑으니 그 아래에 멸망하고 청정한 세계가 전개되었다. 칠보 난간에 누각이 장엄하여 인간세상이 아니었다. 사복이 어머니의 시신을 업고 들어가니 땅은 금방 달아났다.” 삼국유사의 이 기록은 땅같이 죽은 이의 세계(사후)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불멸의 세계, 곧 화엄의 세계임을 말하고 있다.

“수행자는 마음을 땅처럼...”

정토 번뇌 여윈 청정한 불국토
피안 생사바다 넘은 깨달음의 세계

서방정토

정토(淨土)는 번뇌를 여우고 깨달음의 경지에 든 부처님이나 보살이 사는 청정한 국토를 상징한다. 즉 번뇌의 더러움을 여윈 깨끗한 세계이다. 경전에 서는 미(迷)한 인간이 사는 세계가 아닌 곳으로 ‘불월(佛刹)’이라고도 한다. 서쪽 방향을 가리키는 ‘서방’이라는



◇ 극락의 모습을 그린 ‘관경변상도’. 서방 극락정토의 주불인 아미타여래가 설법하고 있는 가운데 원·오른쪽에 사방불이 극락정토를 내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통도사 서운암.

이들과 함께 쓰이는 개념은 인도인들의 방위관과 시간관에서 유래한다. 인도인들은 동쪽을 보면서 앞을 과거, 뒤는 미래라고 믿어 극락이 서방에 있고 내세에 왕성한 세계로 믿었다. 정토의 위치를 (회경경)에서는 ‘연화장세계 가운데 불꽃 미진수 칠중(剎重)이 있으니 칠중은 모두 이십중(二十重) 세계로 되었다. 칠중의 제십삼중(第十三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바세계가 있으니 십삼불할 미진수 세계로 둘러 싸였으며 사바세계의 서쪽으로 십만억세계를 지나가서 정토세계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 정토의 모양을 (아미타경)에서는 ‘대지(大地)는 금·은·산호·호박 등 칠보(七寶)로 되어 아름답게 공명이 비치고 있고, 이 칠보의 땅은 것이 없이 넓으며 항상 온화하여 적을 하기 좋은 곳’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지옥

“지옥(地獄)은 산스크리트 Naraka (奈落迦·奈落)의 의역인데 ‘행복이 없는 곳’ 또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어두운 곳’을 가리킨다. 죄업에 따라 생사를 반복하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의 육도(六道) 중의 하나로 죄의 과보를 받는 고통스러운 곳.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중생들로 하여금 금 지옥의 고증이 얼마나 무섭고 또 무거운가를 일깨워 나쁜 짓을 그치고 착한 일을 널리 행하도록 하는데 그 참뜻이 있다.

경전에 나타난 지옥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내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는 ‘지장보살도’ ‘육도그림’, ‘시왕도(十王圖)’, ‘강로왕도(甘露王圖)’가 있다. 절에서 명부전(冥府殿)과 시왕전(十王殿) 등이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 역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극락에 가고자 하는 염원의 상징이다.

지장보살

지장(地藏)보살은 도리전에서 석가여래의 부축을 받고 매일 아침 선경(禪定)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관찰하

며, 모든 생명을 기르는 대지처럼 세상을 큰 가슴에 보듬어 안고 중생의 웃음과 눈물을 함께 머금고 있는 분이다. 지장은 땅(地)을 주저로 하여 그 대지 안에 항상 머물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장보살은 일체중생의 선근(善根)을 키우고 자라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옥중생의 마지막 하나라도 제도하지 못한다면 결코 성불하지 않겠다는 비정한 서원을 세운 까닭에 육도 어느 곳이지 몸을 바꾸어 나뉘며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한다.

피안

천년전, 저쪽 언덕이라는 뜻으로 ‘이상의 세계’를 상징한다. 피안(彼岸)은 미혹의 차안(此岸)에 대하여 깨달음의 세계를 말한다. 즉 생사(生死)의 바다를 건너 깨달음의 언덕, 열반의 경지를 의미하고 있다. ‘깨달음의 언덕’에 이르러가자 하는 중생들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염송하는 반야심경, ‘아자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자 사바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우리 함께 저 언덕으로 가자, 저 언덕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성취하자.’ 함께 깨달음을 성취하는 뜻있고 힘이 넘치는 주문이 아닐 수 없다.

강원도 철원에 ‘도피안사(到彼岸寺)’가 있다. 865년 신라 도선(道詵)스님이 창건하여 ‘모든 중생을 피안의 해탈세계로 건너가게 하겠다’는 원력을 담아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김경은 기자(jekim@buddhapia.com)



◇ 조선 성종(性聰)스님이 정토신행(淨土修行)을 권유하기 위해 지은 ‘정토보서(淨土寶書)’.



◇ 일체 중생을 피안의 해탈세계로 건너가도록 하겠다는 뜻이 담긴 강원도 철원군 ‘도피안사’.




◇ 지옥을 관상하고 있는 사왕들. 조계사 역원전의 사왕상.

불로화정 (不老化精)

(건강보조식품허가)

건강식품 ‘불로화정’ 특허



시연스님이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 등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건강식품 ‘불로화정’을 상품화하면서 특허를 출원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스님은 이미 10년전에 은사스님으로부터 전수 받아 개발한 불로화정을 그동안 비매출로 사용해 오다 최근 상품화를 위해 특허를 출원하고 시장확보에 나섰다.

현대인에게 활력과 윤기를 주는 영양물질의 보고, 불로화정(不老化精)은 양잠잠은 직접 몸속으로 느껴보십시오. 생명의 근원, 간이 튼튼해야 신체가 건강합니다. 인체의 뿌리, 위가 튼튼해야 몸이 좋아집니다.

본사 생산제품
 승선식 (2개월 50만원), 승효소정액 (2개월 50만원)
 익수영진고 (2개월 70만원), 치신왕기환 (3개월 50만원)

자연건강식품을 먹고 난치병을 고치게 되어 드리는 감사의 말씀

산승(山僧)은 비구니로 60여년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어른의 늙은이로 현재 대구 반야사 주지로서 어린 장애자를 양육,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20여년간 신경통, 고혈압, 위장질환, 몸이 붓는 증세(浮腫)로 고통을 받던 중, 천일지장기도가 끝나는 날 꿈속에서 죄은 스님의 얼굴과 똑같은 시연스님을 만나게 되어 한번만 침을 맞은 후 자연건강식품 ‘불로화정(不老化精)’을 복용하고 모든 난치병이 완쾌되었으며 그 너무나 큰 고마움의 말씀을 글로써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구시 반야사 (전화 053-614-7935) 주지 김 혜영 합장

오래세월동안 비전된 방법으로 만든 「不老化精」은 원래 산중 사찰의 스님들을 위하여 흑염자(검은개)와 감식초외에 10여종의 첨가물을 7년간 발표시킨 건강식품으로 40여년간 시연스님의 은사 큰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것입니다. 「不老化精」은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모든 질병의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고 암을 억제시키며 특히 노인인 발에 땅이 날 정도로 건강이 호전되고 노화도 지연되며 2개월만 복용하면 다이어트를 안하고 마음껏 먹어도 비만이 안되며, 위염, 소화불량, 설사 등 모든 위장질환이 치료되고 복부에 주름살이 퍼지며 음주를 많이 해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며 피로를 모르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 줍니다

■가 격: 정가 칠십만원(7년간 발효식품, 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2,000명에게 오십만원에 할 인하여 드립니다

■입금구좌: 대구은행 033-07-172508(대구여래한방)

저는 20여년의 수도생활을 하고 있는 52세의 비구니로서 중풍 계천시 청해사 주지로 있습니다. 저는 신장병, 골다공증, 위장질환, 호르몬안 등의 만성질환을 앓는 병주머니의 몸이었으나 우리 농산물로 만든 경육고(경육고) 같이 생긴 「익수영진고(익수영진고)」를 복용하고 건강을 회복하였으며 몇 가지 병으로 고생하던 모친과 여동생도 같이 복용한 후 건강한 몸을 되찾게 되어 그 말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을 짧은 글로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여깁니다. 충북 제천시 청해사(전화 0443-646-7371) 주지 박 법륜 합장

저는 64세의 나이 많은 여성으로 여러 가지 난치병 때문에 병약하여 많은 고생을 하였으나 「不老化精」, 「승선식(松仙食)」, 「승효소정액(松靜素精液)」, 「익수영진고」, 「치신왕기환(治身旺氣丸)」 등 자연건강식품을 복용한 후 병을 고치고 생기 넘치는 몸으로 생활하게 되어 그 감사한 말씀을 전해 드리게 된 것을 큰 자람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대구 거주(전화 011-545-5550) 최 청정심 올림

참가서 노화억제·암예방 성분 대량추출

농진청 세계 최초로 다 세이비오는 노화를 막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인정돼 각광을 받고 있는 새로운 기능성 식품으로 기록



《TV에서 성인병, 난치병 특효 설명》
 ※ 식초 한종류 연구로 노벨의학상 3회수상한 사실이 있음.

如來治身自然食品會社

문의전화: (053) 655-2227
(011) 808-8880